

가부장제 가족구조와 폭력의 재생산

〈장화홍련전〉의 배좌수를 중심으로

Reproducing Violence in the Patriarchal Family Structure: A Study of Baejwasu in “Janghwa Hongryeon Jeon”

백지민*

국문요약 본 연구는 〈장화홍련전〉의 배좌수를 중심으로 조선 후기 가부장제 가족 구조 속에서 가부장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폭력의 양상을 고찰하였다. 성리학과 종법제를 기반으로 한 가족 질서는 가부장에게 후사 계승과 가문 명예 유지의 책임을 집중시켰으며, 이는 가족 구성원의 삶을 결정하는 강력한 권위로 작동하였다.

배좌수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재혼과 가족 운영을 수행하는 가부장이지만, 갈등을 조정하지 못한 채 명예를 우선시하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장화의 죽음을 초래한다. 장화와 홍련의 죽음, 장식의 부상으로 이어지는 비극은 가부장의 명령이 가족 전체에 미치는 폭력의 연쇄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배좌수를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구조적 압박을 받는 존재로 파악하고, 〈장화홍련전〉을 가부장제 가족 구조가 지닌 구조적 폭력 재생산의 서사로 재해석하였다.

핵심어 장화홍련전, 가부장제, 가족구조, 폭력, 명예살인

- 차례**
1. 들어가며
 2. 조선 후기 가부장제 가족 구조의 제도적 기반
 3. 배좌수의 인물 형상과 구조적 아이러니
 4. 명예살인과 가부장제 폭력의 재생산
 5. 나오며

사가 송사를 주관하며 피해자인 장화·홍련 자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건이 판타지적 방식을 통해 해결되는 작품이다. 고소설사에서 〈장화홍련전〉은 초기 가정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손꼽힌다. 가정소설은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가정의 위기와 극복-해결 과정을 소재로 다루는 조선 후기 일군의 작품 유형이다.

조선의 가족제도는 17세기를 기점으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조선 후기는 성리학과 종법제에 따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제도화·심층화된 시기로, 가족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구성체로 국가 사회 질서 유지라는 거시적 목적 아래 도구화되었다.² 성리학에서는 만물의 생성이 하늘과 땅의 원리, 즉 남성(하늘)과 여성(땅)의 관계 맺음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러한 관념이 남녀의 역할을 구분하는 출발점이다. 종법은 중국의 오래된 가족제

1. 들어가며

〈장화홍련전〉¹은 1650년대에 평안도 철산의 한 가정에서 전처 소생의 딸이 계모의 모해를 입어 가부장의 명예 따라 명예살인을 당했던 사건을 소설화한 것이다. 철산 부

*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1 본고의 연구대상은 구할자 경성서적업조합판본(인하대 민족문화연구소 편, 『구할자 고소설전집』 13, 은하출판사, 1983, 105~145쪽)을 대본으로 선정한 〈장화홍련전〉(신해진 선주, 『조선후기 가정소설』, 월인, 2000, 585~622쪽)이다. 이하 인용 시, 해당 면수만 제시한다.

2 김정녀, 「가부장적 가족구조 속의 여성의 존재 방식: 〈부장양문록〉의 여주인공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28, 한민족문화학회, 2009, 34쪽.

도로, '적장자 위주의 가계 계승과 그를 바탕으로 한 제사의례'를 의미한다.³ 송나라의 성리학은 유교의 도덕성을 강화하는 한편, 가족제도에 있어 종법을 부활시키고자 하였고, 이를 수입한 조선의 성리학은 도덕성을 함양하고 실천하고자 할 때의 실행 방법으로 종법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고려까지 지속 되어오던 부계와 모계의 공조에 바탕을 둔 가족제도의 전통에도 변화가 생겼다.

가족제도의 변화는 혼인제도 및 상속제도의 변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남귀여가혼에서 친영제로의 전환은 모계적 기반의 약화와 부계 권위의 강화를 의미하였고, 남녀균분상속에서 적장자 중심의 차등상속으로의 변화는 가부장 권력의 집중과 강화를 가속화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가장 큰 지위 변화를 겪은 가족 구성원은 여성이다. '삼종지도(三從之道)'는 여성의 삶을 가부장에게 철저히 종속시키는 대표적 규범으로, 여성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심각하게 제약하였다. 반면, 가부장은 가족 내 권력과 책임을 절대적으로 부여받아, 가족 구성원의 삶을 결정짓는 주체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화홍련전>의 배좌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부장이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구조는 가족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갖지만, 동시에 다른 구성원들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고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한다. 작품 속 배좌수는 제도의 압박을 받는 동시에 그 압력을 가족에게 전가하며, 결국 자녀의 죽음을 초래한다. 이는 가부장이 피해자이면서도 폭력의 실행자가 되는 아이러니를 보여주며, 가부장제 가족구조가 어떻게 구조적 폭력의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배좌수를 단순히 무능하거나 억압받는 아버지로 한정하지 않고, 가부장제 가족구조 내에서 구조적 폭력의 재생산을 매개하는 인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장화홍련전>이 여성 피해 서사

에 국한되지 않고, 남성과 여성 모두를 억압하는 가부장제 질서의 폭력성과 모순을 증언하는 텍스트로 재해석 될 수 있을 것이다.

<장화홍련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한글본과 국한문본, 한문본의 계열 간 영향 관계와 저작 연대를 밝힌 이본 연구부터 시작되었다.⁴ 이후 가정소설의 형성 요인의 고찰 과정에서 계모형 가정소설의 대표작으로 논의되기도 하였다.⁵ 이 밖에도 가정소설 유형을 연구하면서 작품론이 연구되기도 하였다.⁶ 본고의 연구주제와 관련이 있는 17세기 이후 가족제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접근하는 연구도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다. 계모의 영입으로 가정이 이석사회적인 성격으로 변질되어 가족관계가 타산적으로 변모하게 됨에 따라 계모와 전처자식의 갈등이 야기된다는 거나,⁷ 이본들 간 다르게 나타나는 재생담에 집중하여 재생산을 둘러싼 전처자식들과 계모 사이의 이해 관계의 대립이 후대본으로 올수록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해석하기도 하였다.⁸

그간의 연구 성과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장화홍련전>에서 갈등의 축은 계모와 장화홍련 자매임이 분명하다. 더불어 장화와 홍련의 억울한 죽음은 계모의 악행에 그 원인이 있다는 사실도 자명하다. 근래의 연구들은 가부장제의 강화로 인해 계모가 그러한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연유에 주목한다. 계모에 대한 선입견이 작동하여 계모만을 악인으로 부각하여 가부장제의 모순을 감추는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이다.⁹ 이에 따르면, 계모에게 분노를 유발하여 살인까지 저지르도록 부당한 대우를 한 장

4 전성택, 「장화홍련전의 국한문본과 한문본의 내용 비교 및 저작 연대에 관한 고찰」, 『춘천교육대학논문집』 8, 춘천교대, 1970, 43~60쪽.

5 우재제, 『한국 가정소설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8, 259~301쪽.

6 박태상, 「조선조 가정소설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88; 김귀석, 「조선시대 가정소설 연구」,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1992; 조용선, 「계모형 고소설의 문화사회학적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14.

7 이원수, 『가족소설 작품세계의 시대적 변모』, 경남대 출판부, 1997.

8 김재용, 『계모형 고소설의 시학』, 집문당, 1996.

9 윤정안, 「계모를 위한 변명: 장화홍련전 속 계모의 분노와 좌절」, 『민족문학사연구』 57,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5, 63~86쪽.

3 이순규, 「조선시대 가족제도의 변화와 여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5, 123쪽.

화·홍련과 배좌수의 행위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장화홍련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가부장제의 모순의 피해자로 장화·홍련을 비롯한 계모에 이르기까지 여성 인물을 중심으로 해석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의 문제의식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조선 후기 가부장제의 강화에 따른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기도 한 인물이 비단 장화·홍련 자매와 계모뿐일까? 장화·홍련과 계모의 관계는 배좌수를 매개로 형성된 가족 관계이다. 따라서 ‘무능력한 가부장’이라는 단순하고 선연적인 평가 외에, 배좌수에 대해 좀 더 심도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배좌수는 무능한 가부장이자, 명예살인을 직접 지시한 가해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가 명예살인을 지시한 배경에는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하는 가부장으로서의 의무가 주효했다. 그렇다면 그를 단순히 가해자로만 볼 수 있는 것인가? 가부장제 가족구조가 그 시대의 남성에게 요구했던 남성다움과 가부장다움이 남성에게 반드시 이로움-우위의 조건이었는가? 이러한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 후기 가부장의 권리와 의무를 살펴보고, 배좌수가 명예살인을 지시하게 되는 과정과 그것이 가족 구성원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가부장제가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규명하고 가부장제 가족구조 속 가부장에 대해 재고할 수 있을 것이다.

<장화홍련전>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는 오랫동안 여성 인물의 희생과 계모의 악행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¹⁰ 그 중에 특히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모순과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작품 속 여성 형상이 남성 중심 질서에 의해

규정되는 양상을 분석하며,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모순을 드러내기도 하고,¹¹ 재혼가족 상황에서 계모와 전처 자식 사이의 갈등을 사회적 맥락과 연결하여, 여성 주체의 억압과 불안을 집중적으로 해석하기도 했다.¹² 또 계모와 딸들의 대립을 통해 재혼가정의 불안정성과 계모의 부정적 형상을 분석하며, 계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기도 하였다.¹³ 이들 연구는 여성의 피해 서사에 초점을 맞추어 가부장제 사회의 폭력성을 규명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가부장 인물 자체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한편, 최근에는 가부장 인물을 직접 분석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졌다. 윤정안은 「계모형 소설의 ‘아버지’ 재론」에서 <장화홍련전>을 비롯한 계모형 소설 속 아버지를 검토하며, 그가 ‘가부장’과 ‘아버지’라는 이중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존재임을 지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아버지가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의해 억압받는 존재이자, 가부장제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한 바 있다.¹⁴ 이는 기존의 여성 중심 해석에서 벗어나 남성 인물의 곤경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결과적으로 가부장을 피해자적 위치에 고정함으로써 그가 행사한 폭력의 책임을 희석시킬 위험을 내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여성 중심 해석과 남성성 연구가 지닌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배좌수를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분법을 넘어선 인물로 파악한다. 배좌수는 피해자이자 동시에 폭력의 실행 주체로 기능하는 인물임을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장화홍련전>이 단순히 여성 억압 서사가 아니라, 가부장제 가족구조가 폭력을 구조적으로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을 드러내는 텍스트

10 <장화홍련전>에 대한 연구는 1922년 안환의 『조선문학사』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시각에서 이루어져왔다. 특히 작품의 연구사만 별도로 수차례 진행될 만큼 연구 대상으로 매력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이현홍, 「장화홍련전」, 『고전소설연구』, 일지사, 1993, 585~599쪽; 이기대, 「<장화홍련전> 연구사」, 『고소설연구사』, 월인, 2002, 507~526쪽 등). 초기의 연구에서는 이본 연구 및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면, 90년대 이후부터는 구체적인 작품론 연구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작품론 연구는 계모와 전실 소생의 자녀의 갈등 문제를 사회적·구조적·심화적 관점에서 다양한 연구 시각으로 해석하고자 시도해왔다.

11 조현설, 「남성지배와 <장화홍련전>의 여성 형상」, 『민족문학사연구』 15,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1999, 102~131쪽.

12 정지영, 「<장화홍련전>: 재혼가족 구성원의 지위」, 『역사비평』 61, 역사문제연구소, 2002, 442~441쪽.

13 윤정안, 앞의 글, 2015, 63~86쪽.

14 윤정안, 「계모형 소설의 ‘아버지’ 재론」, 『배달말』 66, 배달말학회, 2020, 163~184쪽.

임을 규명하고자 한다. “구조적 폭력의 재생산”이란 제도적 차원에서 가부장의 권력이 가문의 명예 유지라는 명분 아래 폭력을 정당화하는 과정이면서, 서사적 차원에서 명예살인이라는 장치가 비극을 필연화하며 폭력을 내면화하는 방식, 인물 형상의 차원에서 가부장이 제도의 희생자이면서 동시에 폭력의 집행자로 기능하여 폭력이 순환되는 아이러니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장화홍련전>은 단순한 여성 피해 서사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를 억압하는 가부장제 질서의 모순을 드러내는 텍스트로 재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 연구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가부장제 구조와 폭력의 악순환적 재생산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 지평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조선 후기 가부장제 가족 구조의 제도적 기반

조선 후기 가족 질서는 성리학과 중법제를 기반으로 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의해 제도적으로 공고화되었다. 성리학은 삼강오륜을 통해 가족을 사회 질서의 기초 단위로 설정하고, 부계 혈통을 중심으로 한 위계적 관계를 정당화하였다.¹⁵ 특히 부자·부부·장유의 관계는 도덕적 질서로 규범화되었으며, 이러한 질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위계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가부장의 권위를 절대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였다. 이와 함께 중법제는 적장자를 중심으로 한 가계 계승과 제사의례를 제도화함으로써, 가부장의 권력과 권위를 제도적·의례적으로 보장하였다.

이러한 성리학적·중법적 질서는 가부장을 단순한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가(家)’를 대표하는 권력 주체로 위치시켰다. ‘가’는 단순한 가족 단위를 넘어, 가족 구성원과 가산, 가업, 제사의례, 가통과 가승을 포괄하는 하나의 총체

적 구조를 의미한다.¹⁶ 가부장은 이러한 ‘가’를 유지하고 계승할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받았으며, 가문의 존속과 명예를 보존하는 최종 결정권자로 기능하였다. 이는 가부장의 권위가 개인적 능력이나 성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여된 공식적 지위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권력 구조는 필연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억압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였다. 조선시대 가족은 오늘날과 같이 부부 중심의 결합이 아니라, 부계 혈통을 중심으로 구성된 위계적 질서 체계였다. 이 구조 속에서 자녀와 여성은 각각 아버지와 남성에게 종속되는 존재로 위치 지어졌으며, 가족은 상호적 관계라기보다 복종과 통제의 관계로 조직되었다. 적장자라 하더라도 부친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재산과 자녀에 대한 권리를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고, 여성은 삼종지도(三從之道)에 따라 부친·남편·아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존재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위계적 질서는 가부장의 권위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가족 구성원의 삶을 가부장에게 종속시키는 구조를 형성하였다.

가부장제 가족 구조의 강화는 혼인제도의 변화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조선 전기까지 유지되던 남귀여가혼은 남성이 처가 처가 근처에서 생활하거나 일정 기간 처가에서 거주하는 혼인 형태로, 여성 친족의 영향력이 비교적 강하게 작동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친영제가 본격적으로 정착하면서 여성은 시댁 중심의 생활로 편입되었고, 처가의 영향력은 급격히 약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가부장 권력이 가족 내부에 직접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다. 즉, 혼인제도의 변화는 단순한 생활 방식의 변화를 넘어, 여성의 보호망을 해체하고 가부장 중심 질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상속제도의 변화 역시 가부장제 권력 구조를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조선 초기까지 유지되던 남녀 균분

15 박미애, 『유교 가부장제와 가족, 가산』, 아카넷, 2010, 123쪽.

16 위의 책, 2010, 86쪽.

상속은 17세기 이후 적장자 중심의 차등상속으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가계 재산과 권력은 장자와 가부장에게 집중되었다. 이는 여성의 재산권을 크게 제약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가부장의 절대적 권위를 보장하는 또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였다. 상속 질서의 변화는 단순한 재산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가부장 중심의 권력 구조를 재생산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하였다.

한편, 성리학적 규범이 제시한 이상적인 가부장상은 ‘덕망 있고 자애로운 아버지’였다. 가부장은 가정을 바르게 이끌고 자녀를 교화하며, 아내와 가족을 보호하는 존재로 상정되었다. 그러나 현실의 가부장은 제도적 압력과 사회적 기대 속에서 그 이상을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가문의 명예를 유지하고 혈통을 계승해야 하는 과중한 책임은 가부장에게 집중되었으며, 이는 오히려 판단의 왜곡과 폭력의 실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였다. 즉, 이상적인 가부장상과 현실적인 가부장 사이의 괴리는 가부장 권력이 보호가 아닌 통제와 처벌의 형태로 발현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적 조건 속에서 가부장제 가족 구조는 겉으로는 질서와 조화를 지향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폭력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었다. 가부장의 권력은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가문의 명예와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과 아들은 쉽게 희생될 수 있는 위치에 놓였다. 특히 가부장에게 집중된 권력은 가족 구성원의 삶과 죽음을 좌우할 수 있는 권력으로 작동하였고, 이는 폭력의 제도적 정당화를 가능하게 했다.

따라서 조선 후기 가부장제 구조에서 나타나는 폭력은 개인의 일탈적 행위가 아니라, 제도와 규범이 결합하여 작동한 구조적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가부장은 제도의 압박을 받는 동시에 그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로 기능하며, 그 과정에서 폭력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정당화된다. 이는 곧 가부장제 가족 구조가 폭력을 일

회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구조적 폭력 재생산의 체계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장화홍련전>에 나타난 명예살인과 자녀 희생은 단순한 개인의 성격적 결함에서 비롯된 비극이 아니라, 가부장 권력의 집중과 가족 구성원의 종속 구조가 결합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작품 속 비극은 조선 후기 가족 제도에 내재된 구조적 모순이 서사적으로 형상화된 것이며, 이를 통해 가부장제 가족 구조가 지닌 폭력의 재생산 매커니즘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3. 배좌수의 인물 형상과 구조적 아이러니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 후기의 가부장제 가족 구조는 성리학과 종법제를 바탕으로 가부장에게 가문의 대표자로서 막대한 권한과 책임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제도화되었다. 혼인과 상속, 제사와 가계 계승 등 가족의 핵심 질서는 모두 가부장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 유지되었으며, 이러한 구조 속에서 가족 구성원은 가부장의 권위에 종속되는 위치에 놓였다. 표면적으로 이러한 질서는 가정의 안정과 화목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부장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동시에 가족 구성원의 삶을 그의 권력 아래 예속시킴으로써, 폭력의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조건은 <장화홍련전>의 서사 속에서 배좌수라는 인물을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된다. 배좌수는 단순히 가정 내 갈등을 적절히 조율하지 못한 무능한 가장이 아니라, 가문의 영속과 명예를 지켜야 하는 가부장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떠안은 인물이다. 그는 후사를 확보하고 혼인을 주관하며 재산과 가족 구성을 관리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러한 권력을 가족 내부의 갈등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행사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의 판장과 태도는 가정 내 불화와 긴장을 증폭시키

고, 끝내 비극적 파국을 초래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따라서 배좌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성격적 결함이나 도덕적 한계만을 문제 삼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행사하는 권력이 어떠한 제도적 기반 위에 놓여 있었으며, 그 권리와 의무가 어떤 방식으로 가족 내부의 관계를 조직하고 균열시키는가를 살피는 일이다. 특히 <장화홍련전>은 가부장의 권력이 단지 외부적 권위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후사와 재산, 혼인과 애정의 문제를 매개로 가족 내부에 구체적으로 작동하면서 갈등과 폭력을 구조적으로 재생산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먼저 배좌수가 ‘가’의 영속성을 실현하기 위해 후사를 얼마나 중시하는 인물로 형상화되는지를 살펴보고, 이어서 재혼과 가족 구성원에 대한 태도를 통해 가부장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가족 내부의 불균형과 긴장을 어떻게 심화시키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조선 후기 가부장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조상의 제사를 이어가고 가계를 계승할 적장자를 확보하는 일이었다. <장화홍련전>의 배좌수 역시 이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작품은 배좌수 부부가 경제적으로는 넉넉한 삶을 영위하고 있으나, 슬하에 자식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깊은 근심에 빠져 있음을 먼저 제시한다.¹⁷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가산이 아니라 후사였으며, 가부장에게 ‘가’의 영속성을 실현할 책무가 몹시 중요하고 무겁게 여겨지고 있었던 것이다. 장씨가 첫 아이를 낳는 장면에서 배좌수는 아이가 아들이기만을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태

어난 아이는 딸 장화였고, 이어 둘째 역시 딸인 홍련이었다. 작품은 부부가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서술하는 한편, 동시에 두 딸의 아름다운 용모와 순수한 기질을 극진히 사랑하였다고 밝힌다. 이 대목은 배좌수에게 후사를 잊지 못했다는 가부장적 결핍 의식과, 딸에 대한 실제적 애정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배좌수는 제도적 차원에서는 아들을 필요로 하는 가부장이지만, 정서적 차원에서는 두 딸을 아끼는 아버지로도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배좌수의 내적 갈등이 선명해진다. 그는 가족을 사랑하는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가문의 존속을 위해 아들을 필요로 하는 가부장이다. 따라서 두 딸에 대한 애정이 아무리 깊을지라도 후사가 없다는 사실은 결코 해결되지 못한 중대한 문제로 남아 있다. 이처럼 후사 계승의 의무와 자녀에 대한 정서적 애착이 한 인물 안에서 긴장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은, 이후 배좌수의 재혼과 가족 운영 방식, 그리고 갈등의 전개를 이해하는 핵심 전제가 된다.

이러한 긴장은 장씨의 유언을 통해 더욱 구체화 된다.¹⁸ 장씨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사후 배좌수가 반드시 재혼할 것임을 예견한다.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가부장으로서 후사를 도모하는 일은 불가피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씨의 유언은 재혼 자체보다도, 재혼 이후 두 딸이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새로 들어올 후처가 현숙하지 않을 경우 전실 소생의 두 딸이 미움과 박대를 받을 수 있음을 우려하

17 가산은 넉넉하야 별노이 그릴[바랄] 것이 업스나, 오작[다만] 슬하에 한낫[하나의] 자식이 업슴으로 좌수의 부부 밋양 근심하더니...중략... 과연 그 달부터 티기[胎氣] 잇서 십 삭[十朔]이 차미, 문득 방안에 향취[香臭] 진동하며 한낫 아기를 나오니, 이에 남자가 아니오 녀조임으로 좌수 부부 섭섭한 마음은 니로[이루] 측량[測量]키 어려우노, 그 용모의 아름다움과 기골[氣骨]의 순수함을 사랑하야 중증보옥 갖치 길으며 일흠을 장화[蓓花]라 하더니, 장화의 누이 슈삼 세 되미 장씨 또 티기 잇는지라. 좌수 부부 깃버하야 남조되기를 바라고 축수[祝手]하더니, 십 삭 만에 히산하죽 또 한 녀조라. 마암에 서운함을 익이지 못하노, 또한 엇지 할 수 업서 일흠을 홍련[紅蓮]이라 하야 극히 사랑하더니...후략.(585~586쪽)

18 “내 전생(前生)에 죄 중하야 이 세상이 오리지 아니하니 죽기는 원통치야 느느, 더 녀은 형제의 장성하야 원앙의 쌍을 보지 못하니 황천(黃泉)에 도라가도 눈을 감지 못홀지니, 이것이 유한이라. 다만 바라고 원하노 바는 내가 죽은 후에 반드시 달은(다른) 스름을 엮으리니, 만일 그 스름이 현숙하면 다형하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장부의 마음이 변하키 용이(容易)하고, 또한 남의 조식을 미워하키 안는 자 드문지라. 그런즉 녀아 형제의 장리를 위하야 불상하고 가엽기 측량 업나니, 바라건대 이 가는 사람의 유언을 저바리지 말으시고 두 아기를 아뭏조록 어엿비 녀어 잘 길너 갖흔 가문에 출가하야 봉황의 쌍이 화합하노 조미를 보게 하시면, 비록 죽어 명명한 가운뎃셔라도 것거셔 그 은덕을 갑하리다.”(586~587쪽)

며, 배좌수에게 두 딸을 어여뻐 여기고 끝까지 돌보아 달라고 당부한다.

장씨의 유언에서 단순한 모성적 염려를 넘어, 조선 후기 재혼가족이 지닌 구조적 불안정을 읽어낼 수 있다. 후사를 잇기 위한 재혼은 가부장에게는 의무의 실현이지만, 전설 소생 자녀에게는 새로운 위협의 시작이 될 수 있다. 특히 장씨가 ‘같은 가문에 출가시켜 봉양의 짝을 이루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대목은, 딸들의 장래가 가부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 없이는 보장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재혼은 가부장에게는 가문의 영속성을 위한 필수적 선택이지만, 가족 내부의 다른 구성원들에게는 갈등과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제도적 계기이기도 한 것이다.

장씨의 예견대로 배좌수는 삼년상을 치른 뒤 곧바로 혼처를 물색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배좌수의 재혼이 사적인 애정이나 욕망의 결과가 아니라 철저히 가부장적 책무의 수행이라는 점이다. 그는 죽은 처의 유언을 의식하면 서도 후사를 생각하여 아내를 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는 가부장의 선택이 개인의 정념보다 가문의 존속과 계승에 우선적으로 종속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배좌수가 마침내 맞이한 재혼 상대인 허씨는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된다.¹⁹ 외모는 흉측하고 성격은 악독하며, 이웃 간에 험담을 하며 일가 친척을 이간질하는 등 온갖 좋지 못한 성정을 지닌 인물로 그려진다. 이러한 과장된

묘사는 후처 허씨를 부정적으로 형상화하는 전통적 서사 관습의 산물로 볼 수 있으나, 동시에 배좌수의 재혼이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를 부각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배좌수는 여러 곳에 혼처를 구하였으나 “가합한” 상대를 얻지 못한 끝에 허씨를 맞아들인다. 배좌수가 찾던 “가합한” 혼처는 젊고 단정하며 좋은 가문의 이상적인 여성으로 상정하고 있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허씨와 재혼한 것은, 후사를 잇는 일이 다른 모든 조건보다 우선하는 가부장적 의무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허씨와의 재혼은 정서적 친밀감이나 물리적인 지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아들을 얻기 위한 기능적이고 수단적인 결정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수단적 재혼이 곧바로 가정 내 불화를 일으킨다는 점이다. 배좌수는 허씨를 아내이자 생활의 동반자로 존중하지 않고, 후사를 위한 도구로 받아들인다. 허씨가 차마 함께 살기 어려울 정도의 외양과 성정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내한 이유 역시, 그가 가부장으로 아들을 얻어야 한다는 의무를 최우선으로 두었기 때문이다.²⁰ 처음부터 부부 사이의 정서적 유대가 부재한 상태로 지속된 결혼 생활은 재혼 가족 내부에 잠재된 갈등을 야기하고 심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허씨는 재혼 직후 연이어 세 아들을 낳는다. 가부장 배좌수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후사 문제는 이로써 마침내 해소되었다. 표면적으로 보면 허씨는 가부장의 가장 중요한 의무를 실현해 준 존재이며, 따라서 가정 내에서 안정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작품 속 배

19 이씨에 비좌수 | 비록 망쳐의 유언이 있스나 후스를 심각히, ‘안회를 었지 안을 수 업다.’ 하야, 두루 혼처를 구하되 가합(可合)한 곳이 업느니라. 홀일업셔(하릴업어) 필경에 었던 녀조를 었으니, 성은 허가(許家)오 나은 (나이는) 이십이 지나쓰며, 그 용모를 말호진디 얼굴은 한 켜이 넘고, 두 눈은 통방울 고고, 코는 질병 고고, 입은 메역이(메기) 고고, 머리털은 듯 희털 고고, 키는 장승 고고, 소리는 이리와 승냥이 소리 같고, 허리는 두어 아름 되는 중에 호흔 굴뚝팔에 수증다리에 쌍언청이를 다 겹고, 그 주둥아리가 길기는 칼노 썰 지경이면 열 수발이나 되었고, 얼굴의 반반하기는 시로 만든 멍석 같으니, 그 형용은 참아 견디어 보기 어려운 중이 그 마요 쓰는 법이 더욱 망측(罔測)하야 리웃집 흠담하기, 일가간에 이간하기, 불 붓는디 키질하기, 별별 남 못술 노릇을 초조가며 다하니 집안에 두기 일사라도 어려우나, 그것도 계집이라고 그달부터 튀기 잇서 연하야 오달 삼 형대를 나오미, 좌수 | 그로 말미암아 빙 가지 흥을 몰은 데하고 버려두느니라. (587~588쪽)

20 배좌수는 후사를 이어야 한다는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재혼을 강행함으로써 허씨의 차마 보기 어려운 형용과 나쁜 성격을 감내하였다. 배좌수의 후처로 시집 와 아들 삼 형제를 낳은 허씨는 전혀 소생인 장화·홍련 자매를 눈엣가시로 여긴다. 본래 성격도 흉악스러웠던데다, 남편인 배좌수가 자매를 애지중지하는 것에 대한 시기 질투가 극심하였기 때문에 자매를 구박하였다. 허씨가 저지른 갖은 악행을 저지하거나 징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가부장 배좌수가 허씨의 모든 허물을 덮어두었던 것은 허씨가 재혼 직후 아들 삼 형제를 연이어 낳았기 때문이다.

좌수의 태도는 허씨와 그 소생 아들들에게 별다른 애정이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여전히 장화와 홍련에게만 각별한 애정을 기울인다.

배좌수의 부정(父情)은 주로 친모를 잃고 계모에게 학대받는 두 딸에 대한 연민과 보호의 감정 속에서 드러난다. 그는 잠시라도 두 딸을 보지 못하면 몹시 그리워하고,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딸들의 처소를 찾아가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린다. 배좌수가 두 딸을 진심으로 아끼는 아버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배좌수의 이러한 태도는 가정 내 권력과 애정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배좌수는 후처와의 사이에서 세 아들을 얻었음에도, 허씨가 가정에 적응하고 자신의 위치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정서적·관계적 기반을 제공하지 않는다.

배좌수의 편애가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후사와 재산 분배의 문제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²¹ 그는 장화와 홍련에 대한 애정이 깊을 뿐 아니라, 죽은 장씨의 유언에 따라 두 딸을 좋은 집안에 출가시키고자 했을 것이다. 딸들의 혼인을 통해 가문의 혼맥을 정비하고 위상을 높이는 일 역시 가부장의 중요한 의무이기도 하다.²² 따라서 장

화의 혼기가 차도록 배좌수가 적절한 혼처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가부장으로서 그가 해결해야 할 현실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후처 허씨의 입장은 더욱 불안정해진다. 장화와 홍련이 출가할 경우, 일정량의 재산이 딸들에게 분배되어야 하며, 이는 곧 허씨 소생의 아들들에게 돌아갈 몫의 축소를 의미한다.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가정 내에서 불안정한 위치에 놓인 허씨에게, 자신의 노후와 지위를 의탁할 수 있는 유일한 기반은 아들이었다. 그러므로 전처 소생 딸들의 출가와 재산 분배는 그녀에게 단지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는 문제로 인식될 수 있었다.

허씨는 초혼이었지만 배좌수는 재혼이었다. 보통 재혼하는 남자의 후처로 들어오는 여성들은 본인도 재혼이거나, 상대 남성보다 낮은 신분이거나, 몰락한 가문의 성원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경우였다고 할 수 있다.²³ 후처로 배좌수와 결혼한 허씨 역시 몰락한 가문의 성원이었거나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배좌수와 결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름대로 향촌에서 알려진 부를 축적한 배좌수임에도 쉽게 재혼 상대를 구하지 못하였다는 부분에서 허씨의 어려운 형편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게 결혼해서 배좌수의 바람대로 아들을 셋이나 낳았지만, 남편의 애정과 관심은 커녕 죽은 전처와 두 딸에 대한 편애만 목도할 수 있었다. 가부장인 남편의 애정과 관심은 가내에서 후처로 들어온 허씨의 자리를 굳건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토대이지만, 배좌수는 오히려 허씨에게 현재의 풍족함이 모두 전처의 덕분이므로, 그 은혜를 생각하여 두 딸을 내 자식과 같이 사랑하라는 요구를 한다. 가족 구성원의 이해와 납득을 통해 화해를 이끌어내기보다 가부장의 권위를 내세워 전설 자식들을 무조건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여 오히려 앙심의 크기를 키웠다. 후사를 이을 아들을 낳아 예비 가부장의 모

21 “본디 집안이 령체하다가 소녀의 어미 자산(資産)이 만스와 전답이 천연 석낙이요, 돈이 슈만 금이요, 노비가 슈십 명이온디, 소녀 형제 출가호오면 직물을 만이 가질까 하여 시귀지심(猜忌之心)을 품어 소녀 형제를 죽여 업시하고, 자기 자식으로 하여금 도모지 가지게 하고져 하여 밤낮으로 소녀 형제 업시할 계책(計策)을 생각하다가, 나중에 큰 흥계를 넘어 큰 죄를 잡아 튀어야 피를 만이 발나 감안이 니불 속에 너어 낙티호 모양 갖치 만들어 노코, 아비를 속혀(속여) 죄명을 들어낸 후에 거지 외삼촌 집에 보내는 체하고, 불시에 말 튀워 그 아달 장식으로 하여금 다리고 가다가 곱흔 못물에 너어 죽엿소오니, 세상에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잇소오릿가?”(607쪽)

22 가부장은 가족구성원, 즉 자녀의 혼인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었다. 다만, 법에서 정해둔 시간적 범위 내에서 가부장의 결정에 따라 혼인의 상대와 시기를 정할 수 있었다. 『경국대전』 ‘예전-혼가’에 따르면, “남자는 15살, 여자는 14살이 되어야 시집가는 것을 허락한다. 자녀의 나이가 13살이 차면 혼인을 정하는 것을 허락한다. 만약 두 집의 부모 가운데서 한 사람이 지병이 있거나 나이가 만 50살이 되었고 12살 이상 남자가 있을 경우에는 관청에 신고하면 시집이나 장가를 보내는 것을 허락한다.”로 자녀의 혼인의 시기를 법으로 정해두었는데, ‘예전-혜홀’을 통해 “집안이 그다지 빈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0살이 넘도록 시집보내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가장을 엄중히 처벌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가부장에게 자녀의 혼인은 혼처와 혼인 시기에 대해 의사를 반영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리이면서, 동시에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한 것이다.

23 정지영, 앞의 글, 2002, 429쪽.

친이라는 지위를 확보하여 가내에서 안정감을 얻고자 했던 허씨는, 현재 가부장인 배좌수에게 사랑받지 못하여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있었다. 허씨에 대한 배좌수의 무관심은 허씨가 낳은 아들들에게도 이어졌다.

장화와 홍련이 출가할 때 재산이 분배될 것이고, 허씨로서는 가뜩이나 불안정한 위치에서 아들들에게 돌아갈 재산의 양이 줄어드는 것 역시 고민거리였을 것이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허씨의 입장에서는 노후에 의탁할 곳이라고는 아들뿐인데, 그 아들의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 염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경국대전』 형전(刑典)의 사천(私賤)에 대한 규정에 “자녀가 있는 전모(前母)나 계모의 노비는 의자(義子)인 승중자에게 9분의 1을 준다. 자녀가 없는 전모나 계모의 노비는 의자녀에게 5분의 1일 주되 승중자에게는 10분의 3을 더 준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장화와 홍련이 살아있을 경우보다 죽었을 경우 승중자가 된 허씨의 아들 장쇠에게 더 많은 재산이 돌아간다는 의미이다.²⁴ 구활자본 <장화홍련전>에서는 이러한 내막이 자세히 드러나지 않지만, 박인수본에서는 배좌수가 장화의 혼처를 구해서 허씨로 하여금 혼수를 마련하게 한 뒤에 장화를 죽일 흥계를 꾸미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조선 후기 가부장제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전실 자녀가 없을 경우, 그 재산은 후처의 아들에게 모두 상속될 수 있도록 사회 관행이 바뀌어갔다.

가정 내 분란의 여지는 더욱 커졌지만, 배좌수는 계모의 학대에 고통받는 두 딸을 위로할 뿐, 실질적으로 학대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가부장 배좌수의 미온적 태도가 가정 내 불화와 갈등을 극단적으로 치닫게 한 원인이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배좌수는 가부장으로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그는 허씨의 시기심과 두 딸에 대한 박대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두 딸을 위로하고 허씨를 꾸짖는 정도의 대응은 있었지만, 후처가 전실 자녀를

학대하지 못하도록 가정의 질서를 재편하거나, 가족 구성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실질적 조치는 마련하지 못하였다.²⁵ 가부장은 가족 내부의 갈등과 불화를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배좌수는 이를 수행하지 못한 것이다. 후사를 위해 허씨와 재혼하고, 딸들의 혼인과 재산 문제를 관리해야 하는 가부장으로서 그는 가족 전체를 조율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실제로는 편애와 방관을 통해 갈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다. 그는 두 딸에게만 애정을 기울여서 허씨의 증오를 자극하고, 허씨와 그 소생 아들들의 불안정한 처지를 더욱 부각시켰다. 결국 배좌수의 미온적 태도는 계모의 악행을 억제하지 못한 채 가정 내 긴장을 극단으로 몰아가며, 이후 벌어질 명예살인과 자녀 희생의 서사적 전제 조건을 형성하였다.

배좌수의 문제는 단순히 무능한 가장이라는 개인적 한계에 머물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가부장에게 집중된 권리와 의무 자체가 재혼가족 내부의 이해 충돌을 조정하기보다 오히려 폭력적으로 조직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후사를 중시하는 제도, 재산 분배를 둘러싼 구조적 긴장, 가족 구성원을 위계적으로 배치하는 권력 질서는 가부장으로 하여금 갈등의 원인을 해소하기보다 그것을 억압하거나 방치하게 만든다.

따라서 <장화홍련전>에서 배좌수의 행위는 사적인 편애와 도덕적 결함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 후기 가부장제

25 좌수 | 미양 두 딸로 더부러 장부인을 생각하며, 일시라도 그 딸을 보지 못하면 그리는 생각에 삼추[三秋]나 지는 듯하여, 들어오면 먼저 녀의 처소에 가서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뿌려 갈고, “너의 형제 | 김혼도장에 드러난지 어미 그리는 일을 생각하면 간장이 슬어지는 것 같다.” 하며, 사랑하고 불상이 녀임을 마지 안이하던니, 허씨 미양 그 일을 보고 식기지심(猜忌之心)이 생겨 주야로 장화·홍련을 업시할 죄를 생각하니, 좌수는 그 식기하는 마음을 침착[침작]하고 허씨를 불너 크게 책(責)하여 왈, “우리가 본디 빈궁하게 지니다가, 전처가 친정 직물을 만이 여든 고로 지금 우리가 풍비(淸比) 쓰는 것이 다 그 덕이요, 지금 그대의 먹는 것이 다 그 밥이라. 그 은혜를 생각하면 크게 감동할지어늘, 더 녀들을 심히 박대(薄待)하니 엇지 도리라 하리오? 초후는 그리 말고 아모조록 사랑하여 그대가 나흔 조식이나 조금도 초등이 업게 하라.” 하니, 슬푸대! 더 사랑 갓흔 마음이 엇지 회기(回忌)하리오. 그런 말을 들은 후부터는 더욱 불측한 횡동으로 장화 형제를 급히 죽일 뜻을 품고 주야로 교계를 생각하더라.(588쪽)

24 정지영, 앞의 글, 2002, 438쪽.

가족 구조가 지닌 모순이 인물의 선택과 태도를 통해 구체화된 결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의 권리와 의무는 가족을 보호하고 안정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기보다, 오히려 불화와 갈등을 극단으로 밀어붙이는 기제로 작동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장화홍련전>은 가부장제의 권위가 어떻게 가족 내부의 폭력 조건을 형성하는지를 드러내며, 이어지는 명예살인 서사를 통해 가부장제 가족 구조의 구조적 폭력 재생산을 본격적으로 증언하게 된다.

4. 명예살인과 가부장제 폭력의 재생산

살인은 대부분의 공동체 사회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며, 법적·윤리적으로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이다. 그러나 특정 문화권에서는 가족이나 공동체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살인이 관습적으로 용인되거나 정당화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명예살인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명예살인은 정조를 잃었거나 공동체의 종교적·도덕적 규범을 위반한 자녀를 가족 구성원이 처벌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특히 보수적인 이슬람 사회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관습이 유지되며, 그것이 단순한 범죄라기보다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다. 명예살인은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행동한 결과로 살인죄로 처벌을 받기보다는, 이것이 명예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위로 인정되면 사회적인 반발이나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다.²⁶ 이러한 관습은 개인의 생명보다 공동체의 규범과 체면을 우선시하는 가치관 위에서 작동하며, 그 과정에서 살인은 비윤리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반발 없이 관습적으로 승인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명예살인의 관념은 문화권의 차이를 넘어,

가문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 가족 구성원의 희생이 정당화되는 사회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난다.²⁷ <장화홍련전>에서 장화가 부친인 배좌수의 명예 따라 죽임을 당하게 된 것도 명예살인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미혼의 양반가 여성이 낙태를 해서 부정을 숨기고자 한 것은 개인의 추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속 가문의 명예가 실추되는 커다란 문제로 여겨졌다. 이 오명을 제거하기 위해 딸의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비록 살인이지만 가부장으로서 충분히 고려 가능한 선택지로 암묵적으로 용인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장화의 죽음은 단순한 가족 내 학대 사건이 아니라, 가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 여성의 생명을 제거하는 구조적 폭력의 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장화홍련전>은 이러한 명예살인의 논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허씨의 모해 장면에서 구체적으로 그려낸다.²⁸ 허씨는 장화의 부정을 조작해 배좌수에게 알리면서,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가문 전체가 감당해야 할 불명예를 생생하게 부각한다. 그는 ‘우리 배씨가 비록 변변치 못하나 이 고을 양반으로 이러한 망측한 일이 있는 것은 가문에 큰 수치’이며, 만일 이 일이 누설되면 배씨가 가문이 세상에 얼굴을 들 수 없고 자식 삼형제의 장래 또한 끝장날 것이라고 말한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허씨가 장화 개인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가문 전체의 몰락과 후사들의 장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고 강조한다는 점이다. 명예의 문제는 언제나 개인의 도덕성보다

²⁷ 조선시대에 실제로 명예살인은 종종 일어났고, 이에 대한 처벌은 미온적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성록』(정조 8년 갑진, 윤 3월 25일)에 기록된 김몽득의 사례에서 살필 수 있다. 김몽득의 누이는 처녀가 간통을 했다는 혐의로 죽었는데 물리적으로 자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김몽득이 죽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었으므로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김몽득은 풀려난다.

²⁸ “우리 씨씨가 비록 변변치 못하노 이 고을 양반으로 이러한 망측한 일이 있는 것은 가문에 큰 수치라. 만일 이 말이 루설(漏泄)되면 우리 집의 루명(陋名) 고사하고 씨씨 일문(裴氏一門)이 세상에 머리를 들 수 업기는 물론하고, 자식 삼 형제는 필경 당남으로 늙을 터이니, 이런 원통하고 분한 일이 또 어디 있스리오?” 하고 가장 분기(憤氣) 발발하리라. 비좌수란 자는 원리 성품이 인자하고 지식이 업슴으로 남의 말을 잘 듣는 처이라. 이 흥녀의 요악한 말을 들으니 가장 붓그럽고 또한 분분하리[분분하리라].(590쪽)

²⁶ 김중관, 「이르드(명예살인)의 사회심리적 기제에 대한 분석」, 『한국이슬람학논총』 20(2), 한국이슬람학회, 2010, 38~39쪽.

공동체의 체면과 결부되며, 바로 그 지점에서 장화의 생명은 가문의 오명을 제거하기 위해 사라질 수 있고, 사라져야 할 것으로 전락한다.

이와 같은 허씨의 주장은 배좌수에게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배좌수는 “성품이 인자하고 지식이 없어서 남의 말을 잘 듣는” 인물로 묘사되는데, 이는 그가 악의를 지닌 가부장이기 보다 유약하고 미온적인 성정을 지닌 인물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배좌수는 가문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을 거의 강박적으로 여기는 가부장이기도 하다. 여러 대에 걸쳐 중앙의 요직과 거리가 있었고, 본래 부유하지 못했던 가문이 장씨와의 혼인을 통해 비로소 가산을 이루었다는 점은 배좌수에게 가문의 존속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였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실제로 그는 후사를 얻기 위해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허씨와 재혼하였고, 후처의 악행을 정치하지 않은 이유 또한 후사를 낳아준 여인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허씨가 내세운 “가문의 수치”와 “아들들의 장래”는 배좌수에게 치명적인 압박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배좌수는 허씨의 말에 압도되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거나 장화의 해명을 듣고자 하지 않는다. 그는 부끄럽고 분한 감정에 사로잡힌 채, “이 일을 장차 어찌하면 좋으리오”라고 묻고, 어떤 계책이든 집안의 수치를 면할 수 있다면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말한다.²⁹ 이 장면은 가부장에게 주어진 결정권이 실제로는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가문 내 문제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수습해야 할 책임을 지닌 가부장이 오히려 그 책임을 후처의 계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좌수는 가문의 명예를 수호해야 하는 주체이지만, 동시에 그 책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판단 능력을 상실하고 구성원에게 결정의 실마리를 떠넘긴다. 이 지점에서 가부장의 권력은 강력한 리더십이 아니라, 불안과 당황 속에서 타인의 악의를 매개하는 취약한 통로로 변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좌수는 장화의 실물을 마주한 순간 즉각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³⁰ 배좌수는 “비록 용렬하나 골육의 정리”가 있어 장화의 모습을 보고는 차마 강박하게 재촉하지 못했다고 서술된다. 이는 가부장으로서는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과, 어렵게 얻어 애지중지 길러온 딸에 대한 부정(父情)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이다. 즉, 배좌수에게 장화의 죽음은 단지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부정과 가부장적 책임 사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선택이었다. 이러한 망설임은 그가 완전히 냉혹한 권력자가 아님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바로 이 망설임은 배좌수가 끝내 구조를 거부하지 못하고 다시 가부장적 질서로 회귀한다는 점에서, 그의 비극적 한계를 드러내는 결정적 증거이기도 하다.

장화의 죽음 장면은 이러한 가부장제 폭력의 작동 방식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준다.³¹ 표면적으로 장화는 스

30 좌수 비록 용렬하나 골육(骨肉)의 정리(情理)가 있는고로 장화의 정상을 보미 참아 강박히 직촉하지 못하더니, 흥녀 이렇듯 슈작흥을 보고 홀연히 발길노 장화를 박초며 꾸지져 갈오디, ... 후략.(593쪽)

31 “그디가 그디의 죄를 알지니, 엇지 못느뇨? 그디로 하야곰 외가에 가라함 이 정말이 안이라. 그디 실행한 일이 만오되 모친의 어지신 마암에 물은 체 하고 지너더니, 거거익심하야 필경 낙타까지 하미 사세 부득이하야 그 문호의 루둡됨을 감추고져 홀시, 남이 물으게 그디를 업시홀 슈밋게 업는고로 날노 하야곰 ‘이 물에 너코 오라’ 하심으로, 너도 동기간(同氣間) 정리에 참아 못 홀 바로디, 부모의 명령을 거역홀 슈 업서 이에 일으켰스니, 수히 물에 들나.” 하며 직촉하느니라. ...중략... “삼 년이 지난 후에 계모를 엇으미 그 성품이 불촉하야 박타가 날노 자심하느니라. 설은 간장과 슬픈 마암을 의의지 못하야 엇지홀 줄 몰으나, 다만 낮이면 부친을 바라고 밤이면 모친을 생각하며 형(兄) 서로 의지하야 장장 하일(夏日)과 긴긴 추야(秋夜)를 장우다탄으로 지너옵더니, 궁흥극악한 계교의 독수를 버서나지 못하야 오늘날 이 물에 빠져 죽사오니, 이 장화의 천만익미한 사정을 텃디(天地) 일월성신(日月星辰)은 질명하소서. 흥년의 잔잉한 인성을 어엿비 녀이스 나 갖은 일을 본밧지 말게 하옵소서.” 하고, 장식을 도라보아 갈아디, “나는 임의 이 몸쓸 루명을 쓰고 죽거니와, 더 외로운 흥년을 불상이 녀려 잘 인도하야 부모에게 득죄함이 업게 하고, 부모를 모서 세썩무양함을 바라노라.” 하며, 왼손으로 치마를 것어 들고, 오른손으로 월귀탄을 버셔 들고, 신을 벗고 발을 굴으며, 비 오는 하느 눈물의 눈을 감고, ...중략... 만경창파 중으로 나는 다시 뛰여드니, 가련하도다! 장화의 원통함을

29 슬프대! 더 용렬한 비좌수는 그 흥녀의 간계(奸計)를 물었고 가장 놀나며 날오되, “이 일을 장차 엇디하면 도하리오?”하디, 흥녀 같오디, “이 일이 가장 중디하니 아모조록 남이 물으게 하느 것이 상책(上策)일 듯하니, 속담에 ‘싸고 싸 사향하도 난다’ 하느디, 엇디 루설이 되디 안이하리오?” 하디, 좌수! 같오디, “그러면 엇디하야야 도탄 말인가? 무삼 계교던지 생각나느디로 말하면 그디로 시행홀 터이니, 아모조록 계획을 닦여 집안에 슈치(羞恥)를 면(免)케 하면 엇디 다행이 아니리오.”(590쪽)

스로 연못에 뛰어들어 죽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친의 명령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린 것이다. 장쇠는 장화에게, 외가에 보내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 “문호의 누덕됨을 감추고자 남이 모르게 없애려는” 것이며, 자신 또한 동기간의 정리로 차마 못할 일이나 부모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서 이 일을 실행한다고 말한다. 이 대목은 가부장의 명령이 가족 구성원에게 얼마나 절대적인 효력을 지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장화는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썼음을 토로하면서도 끝내 부친의 명령을 거스릴 수 없고, 장쇠 역시 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부장의 의지를 집행하는 도구가 된다. 가부장의 권위는 이처럼 장화와 장쇠 모두에게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작동하며, 그 결과 폭력은 가부장의 직접 행위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속에서 수행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명예살인의 명령이 단지 장화만을 희생시키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장화를 연못에 빠뜨린 뒤 돌아오던 장쇠는 호랑이에게 물려 두 귀와 한쪽 팔, 한쪽 다리를 잃고 불구가 된다. 호랑이는 장쇠에게 그의 어미가 억울한 자식을 모해하여 참혹하게 죽였으므로 하늘이 이를 벌한다는 취지의 말을 외친다. 이는 장쇠의 장애가 허씨의 죄에 대한 응보이자, 가부장의 명예 따라 누이를 살해하는 데 일조한 장쇠의 죄에 대한 징벌임을 뜻한다. 즉, 가부장이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내린 명령은 대상자인 장화뿐 아니라, 그 명령을 수행한 장쇠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명예살인은 가문의 수치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되지만, 실제로는 가족 내부를 더욱 심각하게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

장화의 죽음 뒤에 이러지는 홍련의 죽음 또한 이와 같은 구조를 반복한다. 홍련은 갑자기 사라진 언니의 사정을 알게 되고, 자신에게도 같은 운명이 닦칠 것임을 직감한다. 어린 나이에 친모를 잃고 언니와 부친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홍련에게 부친은 여전히 정서적으로 친밀한 대

상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장화를 죽음으로 몰고 간 가부장이기도 하다. 홍련이 언니를 따라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더 이상 부친의 권위가 자신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적 인식의 표현이다. 이는 오랫동안 계모의 학대 속에서 자매를 지켜주지 못했던 배좌수에 대한 누적된 불신이 결정적 국면에서 죽음의 선택으로 귀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홍련의 입장에서 부친은 정서적으로 친밀한 대상이지만, 가부장인 부친의 권력은 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부조리한 힘이다.³² 다시 말해, 부친의 존재는 정서적 위로의 가능성을 남기지만, 가부장적 권력은 이미 보호자가 아닌 파괴자의 얼굴을 드러낸 것이다.

이처럼 장화와 홍련의 죽음, 그리고 장쇠의 부상은 모두 가부장 배좌수의 명령과 권위에서 비롯된 연쇄적 파국이다. 가부장은 원래 가문 내 분란을 조정하고 문제가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을 지닌다. 그러나 <장화홍련전>에서 배좌수의 권력은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가문을 수호하기 위해 딸을 제거하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아들에게까지 파멸적 결과를 안겨준다. 이 점에서 배좌수의 명예살인 명령은 단순한 일회적 실수가 아니라, 가부장 권위가 어떻게 가족 내부를 파괴하는 폭력의 메커니즘으로 변질되는지를 보여주는 서사적 사례이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배좌수가 장화의 억울함을 어렵게 이 깨닫고서도 일을 바로잡지 않는다는 점이다. 장화의 죽음과 장쇠의 부상을 목격하며 그는 사건의 진상을 어느 정도 의심하게 되지만, 그것을 공론화하거나 자신의 결정을 수정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더욱 홍련에게 애정을 쏟으며 곁으로 드러나는 평온을 유지하려 한다. 이러한 태도는 유약한 성품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부장제 구조가 부여한 권위의 부담 때문이기도 하다. 만약 장화의 죽음이 억울한 것이었음이 공공연히 밝혀질 경우, 이는 단

32 서경희, 「가정 폭력의 실상과 해석의 간극, 그리고 효 담론의 작동 방식: 장화홍련전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58, 온지학회, 2019, 120쪽.

순히 한 딸의 복권에 그치지 않고, 가부장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가문의 치부를 사회에 드러내는 일이 된다.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내린 결정이 오히려 가문을 더 큰 불명예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가부장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좌수는 진실을 바로잡는 대신 침묵을 택한다. 이 침묵은 개인적 비겁함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부장에게 집중된 권력 구조가 자신의 오류를 쉽게 수정하거나 공론화할 수 없도록 만드는 제도적 한계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 지점에서 <장화홍련전>은 가부장의 권위가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하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킨다. 후처의 계략으로 집안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좌수의 가부장적 지위와 상징적 권위 자체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 권위는 진실이 공론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된다. 다시 말해, 가부장의 권위는 올바른 판단과 책임 있는 행위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드러내지 않는 침묵과 억압 위에서 유지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배좌수의 침묵은 단순한 후회나 무기력의 표현이 아니라, 가부장제 권위가 작동하는 방식 그 자체를 보여주는 징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서사 구조는 조선 후기 사회가 가부장에 기대했던 남성성과도 긴밀히 맞닿아 있다. 젠더는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규범적 실천이며, 특정 사회는 그 시대에 적합한 남성성과 여성성을 규범화하고 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³³ 다시 말해 남성성이나 여성성은 언제나 행위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젠더는 특정한 남성성과 여성성을 규범화하고, 동시에 이러한 규범을 비판하고 해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사회가 특정 성별에 대해 '정상'이라고 여기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행동하고 생각하도록 유도한다. 남성성은 개인들과 집단들에 의해 서로 다른 장소, 서로 다른 환경, 서로 다른 시대

에 서로 다르게 형성되고 표현되는 문화의 소산이다.³⁴ 조선의 남성상은 헌헌장부(軒軒丈夫)와 군자(君子)와 문사(文士)의 모습과도 상응할 수 있을 것이다.³⁵ 즉, 온화하면서도 책임감 있고, 결단력 있으며, 이성을 앞세워 가문을 이끌 수 있는 존재로 기대되었다. 부계 적장자 계승이 확립되면서 가부장에게 요구되는 남성성은 가문의 명맥을 유지하고 수호할 수 있는 리더십과 추진력, 책임감, 도덕적 모범성을 갖춘 모습으로 경직화되었다. 그는 가족 구성원의 신뢰를 획득하고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감정보다 이성을 우선시하는 믿음직한 존재여야 했다.

그러나 배좌수는 이러한 이상적 가부장상에 부합하지 못하는 인물이다. 그는 유약하고 용렬하며, 문제를 회피하거나 타인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명예살인을 명령하였지만 그것은 허씨의 계책을 허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장화의 실물을 보고는 끝내 망설인다. 또한 철산부사의 심문 앞에서는 처음에 병사라고 둘러대다가도 끝내 뻔뻔하게 거짓을 밀고 나가지 못하며, 허씨의 흥계와 장화의 억울함이 밝혀지자 크게 뉘우치고 죄를 청한다. 이는 그가 냉혹한 폭군형 가부장이 아니라, 이상적인 가부장상에 부응하지 못하는 미약한 존재임을 보여준다.

배좌수의 비극은 개인의 성격과 사회가 요구한 역할 사이의 불일치에서 발생한다. 그는 강력한 리더십과 결단력, 책임감을 갖춘 가부장이어야 했으나 실제로는 그러한 자질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부장이라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떠안아야 했다. 후사를 위해 재혼을 하고, 후처의 악행을 묵인하며, 가문의 명예에 위협이 된다고 믿은 딸의 죽음을 명한 모든 결정은 궁극적으로 가문의 존속과 수호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의 선택은 오히려 가문을 파탄으로 몰아넣었다. 이는 가부장제와 같은 사회 구조가 특정한 남

33 연세대 젠더연구소 편, 『그런 남자는 없다: 혐오사회에서 한국 남성성 질문하기』, 오월의봄, 2017, 13쪽.

34 존 베이넌, 임인숙·김미영 역, 『남성성과 문화』, 고려대 출판부, 2011, 15쪽.

35 박미애, 앞의 책, 2010, 101쪽.

성성을 이상화하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남성에게조차 동일한 역할 수행을 강제할 때 어떠한 비극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렇다고 해서 배좌수를 단순한 피해자로만 볼 수는 없다. 장화의 죽음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혼전 성관계와 낙태를 용납하지 않는 남성주의적 지배 질서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³⁶ 그 질서를 실제로 집행한 것은 가부장인 배좌수였기 때문이다. 그는 가부장제의 억압적 기대와 규범 속에서 끊임없이 자격을 시험받는 존재였으며, 후사를 잇고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적 의무를 내면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그는 사랑하는 두 딸을 잃게 되었고, 장쇠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며, 자신 또한 죽은 딸의 환영과 목소리에 시달리는 정신적 형벌을 감당하게 된다. 즉, 배좌수는 남성주의적 지배 질서의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중성은 <장화홍련전>이 보여주는 가부장제 폭력의 핵심적 성격을 드러낸다. 가부장제는 모든 남성이 동일한 수준의 리더십과 권위, 책임감을 갖추고 있거나 갖추어야 한다는 비현실적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가부장이 등장할 경우, 가족 내부의 갈등은 더욱 쉽게 증폭되고 비극으로 치닫는다. 배좌수가 두 딸과 허씨 사이의 불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재혼가족 내부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조율할 수 있었다면, 적어도 딸을 죽여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비정한 선택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는 당장의 갈등을 회피하고 미온적으로 대응했으며, 결정적인 순간에는 허씨의 논리에 휘둘려 명예살인을 허락하고 말았다.

결국 배좌수의 명예살인 명령은 단순한 개인적 악의나 무능만으로 환원될 수 없는 사건이다. 그것은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여성의 생명을 제거할 수 있다고 믿는 질

서, 가부장에게 가족 전체의 운명을 결정할 절대 권력을 부여하는 제도, 그리고 그러한 권력을 행사할 자격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남성성 규범이 결합하여 빚어낸 구조적 산물이다. 이 구조 속에서 배좌수는 가부장으로서 가문의 존속을 위해 결단해야 했고, 아버지로서의 정과 인간적 망설임은 결국 억압되거나 왜곡되었다. 그 결과 지키고자 했던 가정은 오히려 파국에 이르렀고, 배좌수는 자식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씻을 수 없는 죄책감 속에 남겨진다.

따라서 <장화홍련전>의 명예살인 서사는 가부장제 가족 구조가 어떻게 폭력을 구조적으로 재생산하는지를 드러내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허씨의 계략은 그 메커니즘을 촉발한 직접적 계기일 뿐이며, 그것을 현실의 죽음으로 완결한 것은 가부장의 권위와 판단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장화와 홍련의 죽음, 장쇠의 신체 훼손, 배좌수의 평생의 죄책감으로 확산된다. 이처럼 가부장제 폭력은 특정 구성원 하나의 희생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 전체를 파괴하는 연쇄적 효과를 낳는다. 바로 이 점에서 <장화홍련전>은 명예살인이라는 극단적 사건을 통해, 조선 후기 가부장제 가족 구조의 구조적 폭력 재생산을 가장 집약적으로 형상화한 서사라 할 수 있다.

5. 나오며

본 연구는 <장화홍련전>의 배좌수를 중심으로 조선 후기 가부장제 가족 구조 속에서 가부장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 그리고 그러한 제도적 기대가 가족 내부의 갈등과 폭력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조선 후기 성리학과 종법제를 기반으로 한 가족 질서가 가부장에게 어떠한 권위와 책임을 집중시켰는지를 검토하고, 이어서 배좌수의 후사 집착, 재혼, 가족 운영 방식, 명예살인 명령과 그 이후의 대응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장화홍련전>의 비극이 단순히 계모의 악행이

36 박일웅, 「신원 또는 봉합-장화홍련전의 구조와 심리적 심층」, 『고소설연구』 49, 한국고소설학회, 2020, 151~152쪽.

나 가부장의 무능이라는 개인적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제 가족 구조 자체가 내포한 모순과 폭력의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가부장은 가족의 수장으로서 절대적 권력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받는다. 이는 가부장이 가족 구성원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혼인과 재산, 가계 계승과 명예 유지에 관한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존재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위는 곧바로 가족 전체를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과 결부되며, 가부장 개인에게 막대한 심리적·정서적 부담을 안겨준다. <장화홍련전>의 배좌수는 바로 이러한 구조적 조건 속에 놓인 인물이다. 그는 후사를 확보하고 가문의 명맥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원치 않는 재혼을 감행하고, 재혼가족 내부의 긴장을 조정하지 못한 채 편애와 방관을 반복한다. 그 결과 배좌수의 권위는 가족을 보호하고 화합시키는 힘으로 기능하기보다,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비극적 파국의 조건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특히 배좌수가 장화의 명예살인을 지시하게 되는 과정은 가부장제 가족 구조의 폭력성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다. 양반가의 딸이 실절하였다는 혐의는 개인적 추문에 그치지 않고 가문 전체의 수치로 간주되었으며, 이러한 불명예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딸의 죽음이 선택될 수 있었다. 배좌수는 허씨가 제시한 가문의 수치, 배씨 일문의 불명예, 아들들의 장래 훼손이라는 논리에 압도되어 사건의 진상을 차분히 살피지 못한 채 장화의 죽음을 허락한다. 이는 그가 악의적 의도로 살인을 감행한 인물이라기보다, 가문의 명예를 보존해야 한다는 제도적 요구를 내면화한 채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가부장으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그 결정은 명백히 자녀의 생명을 제거하는 폭력의 명령이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피할 수 없다.

이 점에서 배좌수는 단순한 피해자도, 단순한 가해자도 아니다. 그는 가부장제의 질서 속에서 가문의 존속과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을 받는 존재이면서도, 바로 그 질서를 실제로 집행하여 가족 구성원을 죽음과 파국으로 몰아가는 권력의 주체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배좌수는 가부장제 폭력의 외부에 서 있는 인물이 아니라, 그 구조 안에서 압박을 받으며 동시에 폭력을 매개하고 수행하는 인물이다. 이러한 이중적 위치는 가부장을 무조건 옹호하거나 면책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가부장제 질서가 어떻게 한 개인으로 하여금 보호자이면서 파괴자가 되도록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이해되어야 한다.

<장화홍련전>에서 장화와 홍련, 그리고 장쇠에게 가해지는 파국적 결과는 이러한 구조적 폭력의 연쇄를 잘 드러낸다. 장화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음에 이르며, 홍련은 부친의 권위가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 속에서 언니의 뒤를 따른다. 장쇠 또한 가부장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구가 되는 형벌을 겪는다. 결국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내려진 가부장의 결정은 가문을 보존하기는커녕, 오히려 가족 전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가부장제 가족 구조에서 권력이 집중될수록 그 결정의 오류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연쇄적으로 전가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장화홍련전>은 가부장의 잘못된 판단이 단지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가정 전체의 붕괴로 이어지는 구조를 서사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작품은 배좌수가 장화의 억울함을 어렵듯이 인지한 이후에도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침묵하는 모습을 통해, 가부장제 권위가 어떻게 스스로의 오류를 공론화하지 못하도록 만드는지를 드러낸다.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내린 결정이 실은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하는 일은, 곧 가부장 자신의 권위와 가문의 체면을 또 다른 방식으로 훼손하는 일이 된다. 그리하여 배좌수는 잘못을 바로잡기보다 현상유지를 선택하고, 진실은 외부 권력인 철산부사의 개입과 초월적 차원의 개입을 통해서야 비로소 밝혀진다.

이는 가부장제 질서 내부에서는 폭력이 스스로 수정되거나 치유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장화홍련전>의 비극이 단순히 여성 억압 서사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장화와 홍련, 그리고 후처 허씨가 가부장제 질서 속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는 존재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동시에 작품은 가부장 배좌수 역시 가문의 명예, 후사 계승, 권위 유지라는 규범적 압박 속에서 끊임없이 자격을 시험받고, 그 결과 끝내 자신과 가족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다. 다만 이러한 점은 가부장을 피해자로만 재워치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부장제라는 가족 구조가 개인과 가족 모두에게 어떤 방식으로 폭력을 강제하고 재생산하는지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장화홍련전>은 가부장제 가족 구조의 구조적 폭력 재생산을 집약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가부장에게 집중된 권력과 책임, 가문의 명예를 둘러싼 압박, 후사와 재산 분배를 둘러싼 불안정성, 그리고 그 모든 긴장을 조정하지 못한 채 폭력으로 귀결되는 가정 내부의 관계는 조선 후기 가족 제도가 내포한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배좌수는 그 구조를 매개하는 핵심 인물이며, 그의 선택과 실패는 가부장제가 개인에게 부과한 역할과 기대가 어떻게 가족 전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드러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화홍련전>의 배좌수를 통해 가부장을 단순한 권력자로만, 혹은 반대로 억압받는 피해자로만 규정하는 기존의 단선적 이해를 넘어설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가부장은 권력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그 권력을 행사하도록 강제받는 존재이며, 바로 이 이중적 위치 속에서 가부장제 가족 구조의 폭력은 반복되고 확장된다. 이러한 관점은 <장화홍련전>을 여성 피해 서사로만 환원하지 않고, 조선 후기 가족 질서가 지닌 구조적 모순과 폭력의 작동 방식을 보여주는 서사로 새롭게 읽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나아가 이는 고전소설 연구에서 가부장제 문제를 보다 다층적으로 사유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구할자 경성서적업조합판본 <장화홍련전>(신해진 선주, 『조선후기 가정소설선』, 월인, 2000)
『일성록』 정조.

2. 단행본 및 논문

- 김귀석, 『조선시대 가정소설 연구』, 조선대박사학위논문, 1992.
김재용, 『계모형 고소설의 시학』, 집문당, 1996.
김정녀, 「가부장적 가족구조 속의 여성의 존재 방식: <부장양문록>의 여주인공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28, 한민족문화학회, 2009.
김종관, 「이르드(명예살인)의 사회심리적 기제에 대한 분석」, 『한국이슬람학회 논총』 20-2, 한국이슬람학회, 2010.
박미애, 『유교가부장제와 가족, 가산』, 아카넷, 2010.
박병호, 「한국의 전통가족과 가부장권」, 『한국학보』 2-1, 일지사, 1976.
박일웅, 「신원 또는 봉합-장화홍련전의 구조와 심리적 심층」, 『고소설연구』 49, 한국고소설학회, 2020.
박태상, 『조선조 가정소설 연구』, 연세대박사학위논문, 1988.
서경희, 「가정 폭력의 실상과 해석의 간극, 그리고 효 담론의 작동 방식: 장화홍련전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58, 온지학회, 2019.
연세대 젠더연구소 편(2017), 『그런 남자는 없다: 혐오사회에서 한국 남성성 질문하기』, 오월의봄, 2017.
우쾌제, 『한국 가정소설 연구』,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88.
윤정안, 「계모를 위한 변명: 장화홍련전 속 계모의 분노와 좌절」, 『민족문화사연구』 57,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2015.
_____, 「계모형 소설의 '아버지' 재론」, 『배달말』 66, 배달말학회, 2020.
이기대, 「<장화홍련전> 연구사」, 『고전소설연구사』, 월인, 2002.
이순구, 「조선시대 가족제도의 변화와 여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이원수, 『가족소설 작품세계의 시대적 변모』, 경남대출판부, 1997.
이현홍, 「장화홍련전」, 『고전소설연구』, 일지사, 1993.
전성탁, 「장화홍련전의 국한문본과 한문본의 내용 비교 및 저작 연대에 관한 고찰」, 『춘천교육대학논문집』 8, 춘천교대, 1970.
정지영, 「장화홍련전-재혼가족 구성원의 지위」, 『역사비평』 61, 역사문제연구소, 2002.
조용선, 「계모형 고소설의 문화사회학적 연구」, 전남대박사학위논문, 2014.
조현설, 「남성지배와 <장화홍련전>의 여성 형상」, 『민족문화사연구』 15,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1999.
존 베이년, 임인숙·김미영역, 『남성성과 문화』, 고려대출판부, 2011.

Abstract

Reproducing Violence in the Patriarchal Family Structure

A Study of Baejwasu in "Janghwa Hongryeon Jeon"

Baek, Ji-Min |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patriarchal figure in the late Joseon family structure through Baejwasu in Janghwa Hongryeon Jeon, focusing on the rights and duties assigned to the patriarch and the conflicts and violence produced within that system. In late Joseon society, the Neo-Confucian family order and lineage-centered structure concentrated both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in the patriarch, especially with regard to remarriage, lineage succession, and the preservation of family honor. Within this framework, Baejwasu appears as the head of the household, yet he fails to mediate internal tensions and instead prioritizes familial reputation. His decisions ultimately lead to the death of Janghwa, while the deaths of Janghwa and Hongryeon and the injury of Jangsoe reveal how patriarchal authority operates as a mechanism of violence affecting the entire household. This study argues that Baejwasu should be understood not simply as an individual perpetrator, but as a figure shaped and constrained by structural pressures, thereby exposing the structural violence embedded in the patriarchal family system.

Keywords JanghwaHongryeonJeon, patriarchy, family structure, violence, honor killing

이 논문은 2026년 3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6년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6년 4월 2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